

초록번호 : III-2-4

제 목	국 문	병원의 임금체계 실태1) - 부산시내 병원을 중심으로		
	영 문	Wage Structure in Hospitals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김정화 · 박준한 ·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		
	영 문	Jung Hwa Kim, Jun Han Park, Key Hyo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, Inje University		
분 야	보건관리	발 표 자	박준한	
발표 형식	구연	발표 시간	15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○), 연구중 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
<p>1. 연구목적</p> <p>본 연구는 병원의 임금체계 관련 실태를 조사, 분석하여 현행 병원임금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병원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계를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연구자료의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병원급 규모 이상 31개 병원의 임금관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직접방문과 우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.</p> <p>3. 연구결과</p> <p>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</p> <p>첫째, 병원의 임금체계는 의사와 타직종간에 기본급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. 의사의 경우 직능급(51.6%), 종합급(29.0%), 연공급+직무급(6.5%)의 순으로 나타났고, 의사의 타직종은 종합급(74.2%), 연공급(12.9%), 연공+직무급(12.9%)의 순으로 나타났다.</p> <p>둘째, 평균임금의 구성비는 기본급 57.5%, 제수당 21.1%, 상여금월할 21.4%로 나타났다. 직종별로는 의사의 경우 기본급 비중이 68.3%로서 간호사. 의료기사 51.9%, 행정관리직 52.4%보다 높게 나타났다.</p> <p>셋째, 수당의 종류는 2종류가 있는 병원에서 26종류가 있는 병원까지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병원규모가 커질수록 수당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.</p>				

넷째, 상여금은 산정기준이 병원마다 상이하고 인사고과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. 상여금의 연간지급율은 평균 460%로 나타났고, 상여금 지급시 인사고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병원이 96.8%에 달하였다.

다섯째, 퇴직금의 지급형태는 법정지급률을 적용하는 병원이 80.6%, 법정지급률 이상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는 병원이 19.4%로 나타났고, 대학병원의 경우 100%가 누진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퇴직금 적립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립하고 있는 병원이 54.9%에 지나지 않았다.

여섯째, 성과배분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의 비중은 전체의 9.7%에 불과하였으나 앞으로 성과배분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병원은 42.9%로 나타나, 상당수의 병원들이 성과배분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일곱째, 임금체계의 복잡성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7.4%는 현재의 임금체계가 복잡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특히 규모가 큰 종합병원, 대학병원에서 더욱 복잡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.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된 이유로는 임금 인상시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대신에 제수당의 신설 확대에 대처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.

여덟째, 기본급 임금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은 현행의 연공급체계를 그대로 유지(16.1%)하거나, 연공급에 성과배분제를 가미한 연공급 수정보완안(35.5%)이 51.6%로 나타나 연공급 체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직능급은 35.5%를 차지한 반면 직무급은 12.9%를 기록함으로써 직능급의 선호도가 직무급보다 큼을 알 수 있다.

4. 고찰

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병원의 임금체계는 각종 수당의 증가, 연공급체계의 유지, 상여금의 증가 및 고정급화 등으로 인하여 그 체계가 복잡하고 개인의 능력, 공헌도, 경영성과 등을 반영할 수 없어 근로자의 동기유발과 병원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근로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.